

하나님에 대하여...

그간에는 교회의 예배 순서에 따라 그 의미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만,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려면 우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웁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 가기로 하겠습니까.

☞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1.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성품 중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닮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창세기 1장 26절]

2.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성부), 그분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성자),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세 분으로서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세 분으로 계십니다(삼위일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며 하나이지만 그 이름이 다르듯이 하시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3장 16-17절]

3.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 중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이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지만 그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사는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갈라디아서 4장 6절]

☞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으로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권능, 계획, 약속 등 모든 점에 있어서 변

함이 없으십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신명기 4장 39절]

2.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므로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골방이든지 넓은 곳이든지 산골이든지 도시든지 어디에서나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139편 7-10절]

3.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결정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욥기 42장 2절]

☞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심과 사랑이십니다.

1.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벌을 주시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9편 7-8절]

2.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계시므로 언제까지나 길이 참아 주실 수 있으며, 자비로우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도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시는 공의의 성품과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동시에 가지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위하여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벌을 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공의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어떤 죄악이라도 모두 용서해 주신 사랑을 만족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3장 16절]

☞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1.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복수 있는 물질 세계를 전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즉 창조주이십니다.

2.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악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 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 시켰고, 나아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3. 온 천지 만물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법칙은 다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에 따라 인도되어져서 결국은 그분이 정하신 본래 목적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깊으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극히 일부밖에는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어렵 뜻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그분을 믿을 때 더욱 의미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 계시 -

계시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덮어 두었던 것을 벗겨서 보여 준다'는 뜻인데, 가장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신 사건입니다. 또 다른 계시는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대부분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타예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기모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용서가 만든 지우개...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 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 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신 당신
 당신 가슴 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그 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미움을 지우신 자리에는 사랑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하여 오늘 행복을 맘껏 느끼세요.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향기 나는 삶 속에서 살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